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考察

—書院의 性格이 變化하는 過程을 中心으로—

文理科大學 副教授 宋 兢 燮

《目 次》

- | | |
|-----------------|------------------|
| I. 序 言 | 3. 書院教育에의 期待 |
| II. 書院의 由來 | IV. 書院性格의 變化(前期) |
| 1. 白雲洞 書院의 建立動機 | 1. 尊賢의 變義 |
| 2. 白雲洞 書院의 建立目的 | 2. 書院의 許可利 |
| 3. 尊賢의 概念 | V. 書院性格의 變化(後期) |
| III. 退溪의 書院教育 | 1. 享祀의 是非 |
| 1. 「紹修」의 賜額 | 2. 壘設의 禁止 |
| 2. 教育의 再建과 求學者 | VI. 結 論 |

I. 序 言

書院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朝鮮朝 中期부터 보급된 民間私學 機關」이라고 함이 通例이다. 그러나 筆者는 이 見解에 異論을 가지고 있다. 書院은 目的과 手段이 明確하고 그것이 一體가 되어 存立하는 것으로서 그 目的은 人倫을 尊重하는 社會 實現에 두고 그 實現을 위한 手段으로 教育이 있었다. 그러므로 書院은 人倫尊重의 社會實現을 위한 中樞機關이라 함이 妥當하다는 것이 持論이다. 이러한 書院의 初期性格은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變化하여 目的과 手段이 轉倒되어 教育이 이目的으로 認識되어 진다. 周世鵬이 中宗 38년에 白雲洞 書院을 建立한 以來 四百年, 書院의 目的은 漸次로 變해 갔던 것이다. 그 變化의 段階는 四期로 區分되며 각각 그 時期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것인바 論題 李退溪의 書院教育論은 그 第2期에 해당하니 白雲洞 書院이 建立된 當時의 輿件과 動機 및 目的을 밝히고 時間과 더불어

이 經過한 자리를 通覽하고 기가지 第2期의 樣相을 考察하여야 退溪의 書院에 대한 立場이 보다 분명해 질것이다. 그런 故로 書院 創建이라는 前因이 어떻게 形成되었으며 그 眞相은 무엇인가를 究明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繼承했으며 어떻게 발전시켰는 가를 考察하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退溪의 盡力이 後世 어떻게 伸張되었는가의 興否를 附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基本方向으로 論述하는 가운데 특히 退溪의 書院과 教育에 대한 思想을 論考하기로 한다.

II. 書院의 由來

1. 白雲洞 書院의 建立動機

우리 나라에 있어서 書院은 中宗38年 癸卯(1543)에 豐基郡守 周世鵬에 의해서 建立된 白雲洞書院을 그 嚆矢라고 한다.¹⁾ 이런 까닭에 書院의 起源은 이때부터로 잡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周郡守는 어찌하여 豐基에 書院을 建立할려고 하였던가. 그 動機를 論及하기 전에 推進者의 張本人인 周世鵬이 어떤 人物인가를 暫時 살펴 보기로 한다.

周世鵬의 字를 景遊라 하고 號를 慎齋라 하며 本貫은 尚州로써 燕山君 元年 乙卯(1494)에 지금의 咸安인 慶尚道 漆原에서 出生했다. 그곳서 成長하여 中宗 17年 壬午(1522) 28歲로 進士 및 文科에 登第하고 以後 官은 累進하여 同25年 庚寅에 (1530) 獻納이 되어 있었다. 이미 惡名 높은 金安老(成宗9年 ~ 中宗38年)를 彈劾하고 同31年 丙申에는 慶尚道 昆陽郡守, 36年 辛丑正月 成均館典籍에 陞하고 다시 慶尚道 豐基 郡守로 被任 그해 7月에 赴任했다. 仁宗元年 乙巳 5月에 內職을 拜하고 明宗 4年 己酉에 戶曹參判에서 黃海道 觀察使 同5年 庚戌에 成均館 大司成으로 돌아 왔다. 이때 關佛論을 上疏한다. 官途는 前後 30年 明宗 3年 甲寅(1554) 7月 初2日 病으로 因하여

1) 白雲洞書院建立以前에도 既存書院이 없는 것은 아니다. 例컨대 丹城의 道川書院(太宗1年), 星州의 川谷書院(同 23年), 扶安의 道東書院(同29年) 등 『典故大力』 參照.

卒했는데 壽 60 이었다.

그의 性格은 勤課不倦하고 府民에는 溫厚圓滿했다고 하며 忠孝之念이 敦篤하고 聖賢을 景慕하는 情이 厚하여 항상 그들의 格言嘉語를 窓壁에 精附하여 誦詠했다고 한다. 그리고 늘 秉志寒士와 같은 消儼苦節은 한 번도 變換한 일이 없다고 傳한다.²⁾ 생각컨대 周慎齋의 이러한 性格으로 말미암아 文教刷新事業에 熱中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周慎齋가 白雲洞書院을 創建한데는 그 動機를 세가지 項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첫째 그가 平素에 抱持한 教學振興의 信念이 있었고

둘째 歷末 安珩이 教育에 끼친 業績을 景慕했었고

셋째 自己의 管轄에 安珩의 故鄉인 順興이 있다는 緣故등 이다.

(1) 周慎齋가 平素에 가진 教育的인 信念은 긴 歷史的 觀察과 現實에 대한 깊은 洞察에서 우리나온 것이었다. 그는 現在의 人間社會를 「無教」의 時代라고 規定한다. 그것은 歷史를 觀察하고 現實의 洞察에서 나온 結論이었다. 여기서 「教」는 儒學의 精神을 말하며 따라서 人倫尊重의 人間精神을 意味한다. 이러한 無教의 現實은 一朝一夕之故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즉,

三綱淪而九法斁，人之類滅久矣(武陵雜稿 竹溪志序)

人倫의 大綱은 沒하고 治世의 大綱은 무너졌으니 人類가 滅亡한 것은 오래라고 慨嘆한 것이다. 「久」라고 한 여기에 上記한 바 歷史를 통한 깊은 觀察의 意味가 있다. 우리는 이 句節이 주는 示唆를 看過할 수 없다. 그것은 書院의 存立意義를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기 때 문이다. (後述) 人倫의 大綱이 沒했다함은

父不父，子不子，夫不夫，婦不婦，長不長，幼不幼(上同)

2) ① 中宗實錄 中宗36年 辛丑 5月 22日 丁未

② 明宗實錄 明宗9年 甲寅 7月 2日 庚子

③ 中元英日 正朔集卷一 『相修書院記』

라는 現象으로 指摘한다. 이 句讀은 前記의 것과 아울러 歷史의 흐름을 觀察하고 社會現實을 깊이 凝視한데서 나온 公憤이요 痛嘆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痛嘆」여기를 出發點으로 하여 그 解決策을 講究할 때 文敎를 刷新하여 敎學을 振興하는 것이 捷徑이라고 想到한다. 그리하여 敎學을 위한 振興策엔 두가지의 基本이 있음을 提示한다. 其一이 「立廟而尚德」인데 德을 기쁨을 意味하며 其二는 「立院而敎學」으로서 讀書를 뜻한다. 여기서 書院에는 修養 즉 尚德을 위한 「廟」과 讀書 즉 講學을 위한 「齋」를 마련 해야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人倫의 尊重精神의 再建을 위하여 尚德과 敎學을 위한 書院創建은 참으로 飢饉을 救하는 것보다 더 急事임이 現實的인 要請이라고 斷定한다.⁽³⁾ 周郡守가 赴任하던 해 즉 中宗 36年 辛丑과 37年 壬寅의 두 해는 연이어 凶年이 있었다.⁽⁴⁾ 守令으로서 이러한 實情을 무릅쓰고 書院建立의 決意를 굳게 하였던 것은 現實相에 대해 얼마나 痛嘆했었던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決意를 굳게 하였던 것은 中國 宋朝의 朱子가 白鹿洞書院을 建立하던 當時의 興件과 故事들이 그를 鼓舞하였던 것이다.⁽⁵⁾

(2) 安珣은 高麗高宗癸卯(1243)에 慶尚道 順興에서 出生하였다. 그의 父는 孚라는 사람으로서 興州(順興)의 史였으며 醫術을業으로 하고 出身하여 官이 密直副使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한 家庭에서 安珣은 少로부터 好學이었다고 하며 登科하여 官은 僉議中贊에 이르렀다. 그런데 周慎齊가 安珣을 敬慕한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業績을 남긴 데 있다.

3) 武陵稿卷七「竹溪志序」에

夫教必自尊賢始，故於是……立廟而尚德，立院而敎學，以誠教急於已亂救飢也。

4) 上同

嘉靖辛丑秋七月戊子，余到豐城，是大旱，明年壬寅大飢，여기의 豐城은 豐基의 舊號임.

5) 上同

吾觀朱子之南康，一年之間，中修白鹿洞書院，又立先聖先師祠，又立五先生祠，又立三先生祠，又爲劉屯田，作壯節亭，常見時，金虜陷中夏，天下血肉，加以南康地面，連歲大飢，方資爾取穀，以活流殍，其危如此，困其如此，而其立院立祠，不一而止者，何也，天生蒸民，所以爲人者有教也。

그는 人材養成을 위하여 贈學錢 즉 獎學基金을 設置하고 教育振興에 宥與한 功이 컸다. 그 獎學이란 高麗에 國學生의 學費를 補助하기 위해서 釀出한 돈 즉 贈學錢을 말한다. 忠烈王 30年 甲辰(1305) 5月 教育이 日益衰退해 감을 憂慮하여 宰相들에게 勸誘해서 獎學金을 造成한 것이었다. 官職者 中 6品以上 者는 銀一斤씩을, 7品以下 者에게는 布를 내게 하여서 設置한 것이었다. 이때 王도 이 뜻에 贊同하여 錢帑을 내어 補助했다고 한다. 이 基金을 贈學庫라 하고 그 利息을 가지고 運營하였다. 또 그 一部 資金으로 敍 博士金文冊을 中國에 보내 孔子와 그의 弟子 70子의 像을 그리게 하는 한편 多數의 書籍을 購入해 오게 하였다.

安珦은 忠烈王 32年 丙午(1306) 63歲로 卒했는데 號는 晦軒이며 諡號는 文成公이며 忠肅王 5年 戊午(1318)에 그의 文敎에 끼친 功을 追念하여 文廟에 配享하였다.⁶⁾ 그런데 安珦은 朝鮮朝에서는 文宗의 諱珣을 避하여 그의 初名인 裕로 부름을 常例로 한다.⁷⁾ 周慎齋는 安文成의 이와 같은 遺業을 欣慕해 마지 않았다. 「竹溪志序」에

每讀麗史，至文成公傳，未嘗不喟然興嘆。

이라고 하였고 麗朝에서의 그의 學問의 比重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語其所向之正，一洗三韓舊染，若益齋，圃隱諸公，皆餘波所漸。逮本朝，禮樂敎化，已覺與三代並隆，爾來二百四十年，天理之復明，文風之大興，其誰之力也。如公者，眞可謂東方道學之祖，雖以薛弘儒，崔文昌之賢，尚不得議其彷彿，其他鳴何說。

또 自己가 安文成에 대한 尊崇하는 뜻을 이렇게 맺고 있다.

-
- 6) ① 李弘植編 國史大辭典 736面 安珦條.
 ② 高麗史卷32世家32 忠烈王條.
 ③ 高麗史卷 105 列傳 18 安珦條.
 ④ 高麗史節要卷23 忠烈王 32年 9月甲申條.
 ⑤ 東國通鑑卷 41 高麗紀 忠烈王 32年 9月條.
 7) ① 顯宗實錄 顯宗 4年 癸卯 6月 7日 癸卯.
 ② 承政院日記 康熙 2年 6月 10日條.

余謂欲見晦軒心，當觀晦翁遺書。欲識晦翁面，當禮晦軒遺像。

라고 한 것이다. 이 짧은 글 가운데 安文成에 대한 慨慕의 念이 그 일이나
천지 했던가를 推測하고도 남음이 있다.

(3) 自己管轄內의 順興은 安文成의 出生地요, 少時讀書, 成長한 곳이다.
平素의 敬意는 당연히 敦厚해 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 遺跡地에 安
文成의 精神을 顯揚한 것을 作心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가지를 一體로 하는 외에 己卯土禍의 충격과 現在의 守습이
라는 地位의 利點도 加勢하여 書院建立을 決心하고 推進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白雲洞 書院 創建에는 出發부터 큰 隘路가 있었다. 上述한
바 到任 2年은 旱害로 經費의 調達도 곤란 했을 것이다, 그리한 凶年의 民
生苦임에도 大役事에는 地方民이 坐視順從만 하고 있지 않았다. 猛烈한 反
對를 說得無摩하는 데 盡力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
宋朝朱子의 白鹿洞故事가 그를 鼓舞해 준 것은 事實이다. 退溪는 周慎齋의
勞苦를 다음과 같이 讚揚했다.

周侯之始建書院也，俗頗疑恠而周侯之志益篤，冒衆笑，排而辨。此前
古后無之盛舉⁸⁾。

2. 白雲洞書院의 建立目的

白雲洞書院의 建立 目的을 考察함에 있어서 다음 두 句節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其一은 「三綱淪而九法斃，人之類滅久矣」이고 其二는 「俟來哲於無窮」
이라고 한 대목이다. 前者의 「三綱」은 君臣, 父子, 夫婦사이의 道理로서 이
른바 人倫의 大綱이며 「九法」은 『書經』洪範九疇로서 治世의 大綱이다. 人倫
과 治世의 大綱이 頹廢한 저기에 道義와 秩序가 있을 理없고 따라서 人倫의
價値는 喪失되었었다. 그런 故로 人類가 滅했디함은 그러한 意味이며 그 狀
態가 「久」라고 한 이기에 周慎齋의 깊은 意中이 있으며 그 意中이 史的 意

8) 退溪先生文集卷九「上沈方伯」書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考察

음을 觀察한대사 왔다고 보는 것이다. 생각컨대 그 「滅久」는 대략 다음과 같은 事件에서 惹起된 道義沒落의 諸現象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太祖李成桂의 高麗朝 打倒에서 부터 形成된 功臣크림, 이른바 勳舊派로 發展하는 開國功臣 (39人)

② 王子芳碩의 亂을 平定한 定宗朝의 定社功臣(29人)

③ 朴苞의 亂을 平定하고 王位에 오르게 한 太宗朝의 佐命功臣(46人)

④ 金宗瑞·皇甫仁·安平大君등을 除去하는데 功을 세운 靖難功臣(36人)

⑤ 端宗을 逐出하고 首陽大君의 篡位에 功을 세운 佐翼功臣(41人)

⑥ 李施愛亂의 平定으로 주어진 世祖朝의 敵愾功臣(41人)

⑦ 南怡·康純등이 謀逆한다 하여 그들을 除去한데 功을 세운 睿宗朝의 翼城功臣(37人)

⑧ 王을 補佐하고 政治를 잘 했다고 주어진 成宗朝의 佐理功臣(75人)

⑨ 中宗反正의 功으로 주어진 靖國功臣(107人)

이와 같은 이른바 勳功의 事件들은 1392年 建國以來 中宗1年(1506)까지는 114年인데 平均 13年마다 勳功의 大典禮가 舉行되었다고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집적오는 論功으로 이른바 功臣크림에 의한 主導勢力이 形成되었다. 이것을 史稱 勳舊派라고 하는 것으로서 政治秩序는 正常을 逸失하는 傾向이 顯著해 진다. 靖難功臣의 경우 年少한 端宗이 即位하자 王位篡奪을 計劃하고 側近者와 謀議한다. 目的달성의 第一로 端宗에 忠誠者를 誣告로 伏誅하고 이 兇事에 協力한 者에 勳錄을 要求한 것이었다.

首陽의 篡奪事件은 朝鮮朝에 最大의 悲劇일뿐 아니라 人臣의 節義와 綱常에 관계되는 問題이므로 儒者間에 輿論이 沸騰하였다.⁹⁾ 이로부터 端宗을 思慕하여 謀復運動을 한 者를 忠臣이라 하고 世祖를 翊贊한 者를 小人으로 指稱하게 되는 價値觀이 成立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權力層에 附和하는 者를 貶稱하는 傾向을 낳게 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忠臣과 小人을 規定하는 儒家思想을 春秋大義라고 하여 「道義」의 뜻도 거기에 있는 것인데 現代 概念으로는 「正義」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玄田允吉 『朝鮮儒學史』(1948年 乙酉文化社刊) 39面 以下 參照

李成桂가 建國한 當時 벌써 節義의 精神이 世論되었고 事件마다 이러한 精神이 附隨되던 터에 世祖의 纂立은 倫理思想에 큰 波紋을 미쳤다. 신비들 사이에 비록 表面上 公然하게 非難하지는 못하나 心으로 또는 깃속 말로는 「非理」임을 憤慨하는 터였다.¹⁰⁾ 功臣크림의 專擅으로 處理되는 여기에 有德者의 登用과 主張이 反映되기는 至難한 일이다.

太祖以後 中宗까지 11代를 통해 治世의 主導層인 政派의 任用은 參榜로 고된 功臣이 占한數는

太祖朝 4名中 3名, 定宗朝 11名中 6名, 太宗朝 16名中 3名, 端宗朝 3名中 全員, 世祖朝 17名中 14名, 睿宗朝 3名中 全員, 成宗朝 11名中 9名, 燕山君 때 11名中 4名, 中宗初(13年戊寅까지) 8名中 4名으로 나타난다. 功臣錄에 不在한 其他政派도 대부분이 그들의 直孫이거나 戚當間이다. 一例를 들면 太宗때 領相沈溫은 世宗의 國舅이고 그의 父가 太祖朝의 領相 沈德符, 領相 柳廷顯은 一熙右相 柳亮의 再從侄이고 世宗때의 右相 盧閑은 定宗때의 左相 閔齊의 婿, 閔齊는 太宗의 國舅이고 世祖朝의 領相 危城君浚은 世祖의 孫이고 成宗朝의 右相 尹士昕은 一熙 右相인 尹士昕의 兄이요 右相 尹豪는 士昕의 再從叔이고 燕山君때의 左相 鄭岳은 世祖朝의 三熙 領相인 鄭昌孫의 子, 左相 李克均은 成宗朝의 二熙 領相 李克培의 弟, 左相 許琮은 成宗朝의 二熙 右相인 許琮의 弟, 左相 朴崇實은 太宗때의 一熙 左相인 朴崇의 孫, 右相 姜龜孫은 世祖朝의 一熙 領相인 姜孟卿의 再從侄, 左相 慎守勳은 成宗朝의 二熙 領相인 慎承善의 子이고 中宗朝의 左相 申用漑는 世祖朝의 四熙 領相인 申叔舟의 孫등(數字는 功臣錄同數인) 이와 같은 비록 功臣稱號는 없나 해도 그들과 縱 또는 橫으로 特別한 關係를 맺고 있는 人上들이나. 國家社會는 이들 功臣크림에서 主導되었음은 이 例示 만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功臣錄臣에 의한 權力掌握은 有德者의 登用이라는 儒家의 政治思想으로 볼때 非正常이라 이니 할 수 없다.

非正常的인 經路에 의한 權力層의 構成은 자연히 排他的 專制的인 現象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0) 丞相允贊의 上馬山 同面 以下

反面 이니인 熙舊派 專橫에 士林派의 牽制가 있었다. 士禍는 그러한 牽制 過程에서 일어난 現象임을 뜻한다.

燕山君 4年 戊午에 柳子光 李克敏등의 熙舊派에 의한 士林派가 彈壓되는데 金宗直등 新進士類가 被禍되었다. 이른바 戊午士禍가 이것이고 同10年 甲子에 燕山の 生母 尹氏의 復位問題로 빚어진 士林派의 被禍事件, 甲子士禍가 이것이고 中宗 14年 己卯에 南袞, 沈貞, 洪景舟등 熙舊宰相들이 趙光祖, 金淨, 金湜등의 젊은 士類를 살해하고 혹은 유배하는 事件, 이것이 己卯士禍인데 이러한 이른바 士禍들은 그 代表的인 것으로 들 수 있다.

더러한 熙舊派專橫에 士林派의 牽制를 道學派의 對立이라고 하지만 特別 趙靜庵등이 靖國功臣 가운데 無資者格가 많으니 이들을 再審하여 功臣號를 削奪하자고 建義하여 마침내 全功臣(107人)의 4分の 3에 該當하는 76名(沈貞包舍)의 功臣號를 削奪했었다. 이에 怒할 熙舊들은 모든 手段을 動員하여 謀略中傷에 나섰다고¹¹⁾ 하니 兩派對立이 그 얼마나 尖銳했던가를 알 수 있는 同時에 分配式의 派閥的인 論功이 있다는 一面을 짐작케 한다. 그것은 그들의 欲望과 專橫의 反證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士林派의 被禍는 熙舊派의 基礎가 堅固하다는 反證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때 建國以來 中宗 14年(1519) 己卯까지 127年인데 이 사이의 特徵을 一言으로 말하면 「造熙歷士」의 連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強者 貪欲의 狀況속에서 人倫이 高貴할 수 없었고 政治의 紀綱이 또 社會의 秩序가 崩整될 수 없을 것이었다. 周慎齋가 慨嘆하는 「無教」는 실로 이와 같은 背景을 일러하는 말이다.

人倫尊重 즉 「有教」에의 回復은 教育으로 實現된다고 하는 것이 周慎齋의 信念이었다. 그러나 그 實現은 긴 將來를 두고 後進들을 기다려 可能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書院建立의 目的이 있었다.

書院에서의 教育이란 단순한 授業 즉 講學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한 사람의 人間 養成에 局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有教」 즉 理想實現의 推進者로서 儒學精神의 實踐者로서의 役軍을 養成하며 나아가서는 歷史

11) 李弘植編 國史大辭典 1397面 趙光祖條.

의 方向을 바로 잡고 이끌어 간 人格者의 養成에 있는 것이다. 歷史의 潮流를 認識하고 理想의 實現을 確信한 時代의 擔任者로서의 覺醒을 強力히 要求하는 教育이라 한 수 있다. 그러므로 書院도 단순한 授業의 場반의 구실이 아니라 思想의 흐름을 觀察해서 未來에 다 設定한 目的으로 向하는 Ideologie인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書院에서의 教育 즉 講學은 手段이며 결코 目的이 아니다. 教育은 人倫을 實現하는 手段에 不過했음에도 不拘하고 時間이 經過하는 사이에 目的으로 轉倒되어 書院의 存立이 도리어 手段의 位置로 轉落되고 말았다. 書院을 教育機關으로만 規定한 것이 아니라 道義 尊重, 人倫重視의 人間社會를 實現하려는 中樞機關이라고 함이 타당 하다고 보는 것이다.

생각컨대 28才로 科擧에 及第한 周慎齋는 己卯士禍때는 24才였으니까 熱心히 讀書하는 正義롭고 情熱이 솟는 青年期였다. 그런 까닭에 이 事件은 그에게 큰 衝擊을 주었을 것이며 이러한 衝擊이 그의 堅固한 教學振興의 思想을 形成하는 큰 原因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連續 일어나는 士林派의 被迫이라는 可恐한 現實앞에 匡正策은 무엇인가를 深思熟考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朝廷을 통한 그 推進은 熙舊派의 專橫으로 因하여 長期的으로 보지 않고는 不可能하다고 判斷했을 것이다. 여기서 「俟來哲於無窮」 즉 긴 時間을 두고 後進들에게 期待를 걸었고 書院을 創建하여 教學을 振興하는 것이 捷徑이라고 決意했을 것이라고 思料된다. 이 點에서 周慎齋의 書院建立은 思想史的으로는 一大轉換의 意味가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이러서 周慎齋의 教育 즉 書院教育은 傳來의 教育과는 그 理念을 달리한다. (12) 書院의 建立은 教育史的으로도 重要性을 否認할 수 없으며 中宗 38年은 韓國의 思想史나 教育史에 새로운 章이 펼쳐지는 意義를 認定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2) ① 우리 나라 傳來의 教育에 關해서는 柳洪烈氏의 論文「麗末解初의 私學」(『靑丘學叢』第24號)의 「朝鮮に於ける書院の成立」(『同』29・30號)도 參照

② 慶北大師大曹秉圭교수의 『韓國教育史』(大邱 靈雪出版社, 1973年刊)書院條 參照.

3. 尊賢의 概念

前項에기 글及된바 書院에기의 教育은 丁段이었다. 書院은 道義尊重의 人間社會를 實現하려는 中樞機關이 있다. 그러므로 道義實現이 그 目的이며 教育은 이에 附隨되는데 不過하다

周慎齋에 있어서의 教育의 概念은 一言으로 「尊賢」 그것이다. 尊賢이것이 教育의 全部를 占하는데 그 尊賢에는 두 支柱가 있다. 그 1은 「立廟而尚德」 이고 그 2는 「立院而敦學」이다. 先賢의 德을 기리는 尚德은 學究者의 基本姿勢이며 이러한 마음 기짐에서 비로소 學은 두터워 지는데 敦學 즉 完熟에로 向하는 것이다. 尚德과 敦學이 表裏一體를 이룬 이것을 教育(敦學이라고도)이라 하며 周慎齋의 表現으로는 尊賢인 것이다. 이와같이 「尚德」과 敦學」은 書院教育에 있어서 骨幹을 이루는 것이며 그런 故로 書院에 先賢의 廟가 있게 되고 學修의 院 즉 齋가 있게 되는 것이다. 先賢을 從祀하는 이른바 配享은 이런 뜻에서 必須的이며 이 以後 配享과 講學이 書院教育의 二位一體가 되어 그 基本條件으로 不可缺한 것이 되고 連綿히 지켜져 내려가는 것이다. 그런 여기서 白雲洞書院이 初期에 이렇게 運營되었는 가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學修의 具體的인 內容 즉 教科目으로는 물론 儒學의 經書이다. 中宗 36年 5月 23日 丁未條에

當初開基時，掘地得銅器三百餘斤，買書冊於京師而藏之，非從經書，凡程朱之書，無不在焉。(中宗實錄)¹³⁾

라고 있어서 위선 藏書는 不便이 없을 만큼 準備된 듯하고 財政面에서도 어긋 窮乏하지는 않은 듯 하다. 財政面을 조금더 살펴 보자 財源은 주로 田畝에서의 收入에 있었다. 「竹溪志學田錄跋」에

田若干結下，歲入租若干斛，有邑人進士黃彬氏，出租七十五石以助之，春秋享廟之餘定以原遊之士(武陵雜稿卷八)

13) 中光漢의 企齋集卷一 「紹修書院記」 參照

上述한 바의 같이 當時는 大飢라는 窮乏한 實情임에도 이치면 財源이 確保되었다 함은 참으로 盡力했음을 엿 볼 수 있겠다. 書院에 財源이 確保되어야 하는 그 理由를

誠使學者，家溫則雖裹飯而來學可也。若厄於貧，則雖有願學之士，勢有所不敢。嗚呼，可以裹飯者，有飯而不就，可以就學者，有志而無飯，於吾學何，以固書院之所以不得無田也。(上同)

라고 記述하고 있다. 書院의 財源이 되는 이른바 書院田은 願學해도 家貧으로 如欲치 못한者를 救하는데 있다. 요사이의 獎學基金인 것이다. 한 두끼의 食事が 차지하는 生活에서의 比重, 참으로 經濟的으로 零細한 當時의 實情을 痛感케 하는 句節이다. 배움을 願하는 者에게는 最大限으로 支援하여 教育에 滿全을 期하자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教育一念의 아름다운 精神의 表現인 學田이 후에 甚한 弊端을 낳게한 書院田으로 變質될 줄은 누구도 豫測 못했을 것이다.

學田以外 息米하는 糧穀이 있었다. 息米制度는 糧穀을 貸付해 주었다가 그 利息을 받아들여 增殖하는 制度로서 相當量의 現物을 確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⁴⁾ 學田에서 生産되는 대부분은 運營費로 充當한 것이겠지만 餘分을 息米로 다시 增殖해 나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렇게 해서 學田(贍學田)라 息米(資米)가 基本財源이고 때로는 黃進士 처럼 篤志家의 宥附도 있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이러한 收入으로 上記한 바 學生의 聚食, 春秋享祀의 祭需등 各種經費가 支出 되었을 것이다.

建立當初의 白雲洞 書院의 基本財産은 대략 以上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財産의 管理方法은 어떻게 했던가. 大提學 申光漢의 「紹修書院記」에

給息錢置贍田，使郡士之有識者幹之。(企齋集卷一)

- 14) ① 中宗實錄中宗 36年 5月 22日丁未條에 白雲洞書院，左右有序，以爲儒生棲息之所。儲穀若干，存本取利，使郡中凡民俊秀者，聚食而焉。
 ② 紹修書院勝錄의 嘉靖 29年 6月初 4日 「在聞慶輪送」條에 土田則周世鵬措置，不爲不足。
 ③ 明宗實錄 明宗 5年 庚戌 2月 11日丙午條 各項參照。

라고 한데 미루어 郡內의 有識者중 信用있는 士기문 管理委員으로 複數選任하여 이들로 하여금 分掌케 한 듯 하다.

그 다음으로 書院의 組織을 보면 明文이 없어 仔細치는 못하나 發見當時에는 院長制가 아니었다. 그것은 明宗 2年丁未 2月初3日에 慶尙監司 安珪¹⁵⁾이 制定한 規程의 一款에 이렇게 規定하고 있다.

院長一人常定, 祭祀, 儒生供饋云云(白雲洞書院斯文立議)

이 條項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安珪의 在任期間이 明宗 1年 丙午부터 滿 1年이니 建立으로 부터 三年인데 비로소 院長制의 必要性을 느낀 反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후 明宗 4年에 李退溪가 沈通源監司에게 보낸 「上沈方伯書」에서

使郡中諸生員, 主其事 郡十金仲文幹其務, 招集學徒, 四而至勸獎誘掖不遺餘力.

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院長指揮下의 運營組織은 發見으로 부터 훨씬 뒤에 採擇되었다고 할 수 있다.

運營에 關해서는 財産管理의 例와 같이 郡士들이 參與하여 主管運營케 했다고 생각된다. 결국 白雲洞 書院의 基本制度는 院務의 計劃에서 決定에 이르기 까지 協議에 의하는 自治制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運營에 參與하는 사람이 다만 「諸生員」이라고만 明記되어 있어서 協議의 節次와 함께 그들의 資格의 基準같은 것은 未詳이나 상당히 慎重을 期했을 것이므로 學識과 德望있는 즉 人格있는 有德者였을 것이고 또 이들을 推薦이나 任命權者도 누구인지 明文이 없으나 생각 하면 書院建立의 推進體가 周郡守이니까 아마도 그가 任命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前記 安珪의 「斯文立議」의 第3項의 다음 句節에 의해서 證明된다.

15) 安珪은 燕山郡 7年(1501)生 明宗 15年(1560)卒, 字는 仲珍, 號는 雪江, 諡號 文愼公. 文成公安南의 11代 孫이며 明宗 1年 丙午 2月부터 다음에 3월까지 慶尙道 觀察使로 在任했다. 이에 白雲洞書院을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여 주었다. 『大正府邑誌』參照.

周先生創建時, 親自督役. 既成之後, 躬祀廟庭, 匹馬來宿, 與儒生講論經義.

周郡守는 完工으로 손을 떼 것이 아니라 繼續熱意를 傾注했음이 確實함으로 財産管理나 書院運營에의 參與者를 選定하는데 無關心했을 理가 없었을 것이 當然하다. 그래서 關與者의 任命은 周郡守가 했다고 보아 無妨하다. 이리하여 執行의 諸般業務는 金伸文이 擔當한 것이다.

다음으로 教授 또는 訓導등의 專任教授職者로 常任은 아닌 듯 하다. 前記 周郡守의 「與儒生講論經義」에서 示唆하는 마로서는 隨時擔任者를 選定 教育시켰다고 해서 支障없겠다.

끝으로 學生에 관해서 보면 當時에는 廣告 募集하였다.¹⁶⁾ 前記의 「招集學徒四而至」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멀리는 清洪(忠清道)에서 또는 龍宮(現禮泉郡)에서도 왔다고 한다. 이들의 學習態度는 「勸獎誘掖不遺餘力」 즉 勸獎하고 教導하는데 餘念이 없었다고 하니 教育者나 被教育者가 다 같이 熱意에 充滿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以上으로 建立當時의 白雲洞書院의 全般에 걸쳐 論及한 셈이다. 周慎齋의 創業은 실로 긴 未來를 指向하여 넉디넉 巨步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Ⅲ. 退溪의 書院教育

1. 「紹修」의 賜額

周慎齋의 書院은 過去 및 現在의 無教를 痛嘆한데서 출발하여 後世의 긴 將來를 두고 後進인 「來哲」에 대한 期待가 있었다. 즉 使命이 賦課되어 있던 것이었다. 前司諫 黃孝恭 등도 『斯文立議』 第二條에서

……而有益於國家養育人材之道至矣. 周君與學之誠, 悠久可想.¹⁷⁾

16) 退溪先生文集卷 十二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에
士有自清洪來者, 有自龍宮來者.

17) 紹修書院曆錄의 「順興文成公齋白雲洞書院斯文立議」參照.

라고 한대서는 그것을 알 수 있겠거니와 前記 「以依來哲於無窮」이라고 한 句節을 아울러 考察해 보면 充分히 그러한 使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後世에 그 實現을 可期하는데서 書院이 存在하고 教育을 強調한 것이었으며 教育 그것을 「尊賢」이라고 表現한 것이었다. 이 時期를 筆者는 書院 發展史에서 創業期 즉 第一期라고 區分한다. 書院發展의 第二期는 李退溪에 의해서 繼承 그 기틀을 굳히는 定礎 時期가 된다.

退溪의 定礎作業은 一言으로 하면 內實을 期하고 書院을 國家 公認下의 制度化 한대 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우선 內實面을 보면 「上沈方伯書」에

凡書院必有洞主或山長，爲之師以掌其教，此一件大事尤當舉行。(退溪先生文集卷九)

라고 있어서 書院에는 반드시 專任의 스승이 있어야 한다. 「洞主」는 그것은 意味하며 그 다음으로 專任의 資格基準이다.

此須擇於遺逸之士，或閒散之員，而其人才德望實，必有出類超羣之懿，卓然爲一世師表者乃可爲之。(上同)

라고 한대서 알수 있드시 世俗을 떠난 사람 또는 官識에 있지아니 한 사람 이라야하고 學德이 卓越하여 一世의 師表가 된 사람이어야 한다. 한 미더로 清廉하고 學德있는 人格者를 말한다. 이러한 要求는 그 任用에 情實 介入의 排除를 考慮한 것도 當然한 일인 것이다. 다음은 對外的인 面인데 이 措置를 위한 여러 事項은 賜額請求疏에 具體的으로 論述되어 있다.

이 賜額疏는 退溪가 豐基郡守로 在任하던 明宗 4年己酉(1549年)12日⁽¹⁸⁾에 上司인 慶尚監司沈通源에게 올린書を 말한다. 「上沈方伯書」과 하거니와 記述한 建議事項을 다시 朝廷으로 京達해 출것을 要請한 것이 었다. 書院의 賜額을 要請했다는 意味에서 「賜額疏」라고도 한다. 이 疏의 內容은 10個項으로 大別되는데 먼저 中央에서의 處理 顛末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沈監司는 郡守 李退溪로부터 建議書를 받고 轉啓上聞했는데 朝廷에서는 그로부터

18) 退溪의 豐基郡守被命은 明宗 3年 戊申10月이 있다. 退溪先生年譜參照.

3個月이 지난 明宗5年庚戌 2月11日 丙午에 王命에 의한 會議을 인하였는데 參席者는 領相 李芑·左相 沈連源·右相 尚農 등의三公과 禮曹判書 尹漑, 同參議 徐罔議 등의 常務者들이 있다. 이들의 沈監司로 부터 京遠된 退溪의 白雲洞書院賜額疏를 議啓하였던 것이다. 이 議啓는 扁額의 宣額과 書籍 그리고 監司 守令의 學令禁止등을 除外한 賜田등의 要求는 들어주지 못 하였다. 「다 따르기는 어려우니 特命하여 扁額과 書籍 二三件을 下送」⁽¹⁹⁾ 시키기로 하고

……則遠方儒生，必鼓舞欣感而興起也.

라고 激勵辭를 附記하였다. 判書 尹漑는 大提學 申光漢에게 院名을 依賴作名케 하고 作名者는 校書館에서 刻字하여 作名記와 書籍과 함께 내려 보냈다.⁽²⁰⁾ 그 作名の 經緯를 「分定行移曆錄」에서 보면 대략 이러하다.

大提學申光漢書啓單字內，白雲洞書院扁額，紹修書院·興慶書院以入啓. 嘉靖二九年三月十一日紹修書院落點.⁽²¹⁾

이렇게하여 白雲洞書院은 「紹修」로 改名賜額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紹修」의 뜻은 「紹修書院記」에서 보면

孔子雖大聖，不得君師之位。及與其徒，講明爲學所道。其言曰，自天子至庶人，一以修身爲本。其世以教所以學，無非內外交修之道也。天下之後世，翕然宗師之。孔氏之道衰，而孟氏者出。孟氏者傳孔氏之道，而紹之者也。(企齋集卷一)

19) ① 明宗實錄의 明宗 5年庚戌 2月11日 丙午條에

李漑之請扁額，書籍，藏獲不可盡從。而扁額及書籍二三件，特命下送.

② 이 以後에도 二三次 書籍加給이 있었다. 明宗 5年 3月 15日 己卯條와 明宗 7年 壬子 4月 25日 丁丑條參照.

20) 19①의 明宗實錄同年同日字 및 企齋集卷一 紹修書院記 參照.

21) 紹修書院曆錄中「白雲洞書院加造成及 讀書儒生常養雜物分定行移曆錄」의 嘉靖29年 6月初4日條參照.

22) 自天子以至於庶人，豈是皆以修身爲本.

라고 記述되어 있다. 이기의 「……以修身爲本.」은 『大學』 經文一章後尾에 나오는 句節로서²²⁾ 위로서는 天子로부터 아래로는 庶人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면 누구나 그 根本은 「修身」에 있다는 「修」와 孔子死後의 思想界는 그의 流派가 多岐하이 異端邪說이 橫行하이 그 正傳이 흐려지는 儒家の 危機²³⁾ 있을때 孟子가 이를 繼承宣揚한 事實에 비추어 이를 「紹」라고하여 「修」를 「紹」한 즉 「紹修」라고 한 것이었다. 人間の 壽기(福壽)를 繼承함으로써 後世에 傳해준 孟子的 功績, 이 事實이 주는 史的 意義를 지금 白雲洞 書院의 存在意義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當時 人倫의 頹廢한 狀況인을 收拾할 수 있고 그러므로 紹修書院에 그 復興의 使命을 賦與한 것이었다. 이런 意味에서 既述한바 教育만이 書院의 存立目的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退溪가 뜻하는 書院의 意義는 朝廷에서 완전히 公認되었고 아울러 紹修書院의 將來에 도크게 期待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위서 及及한바 退溪가 豊基郡守로 在任하던 그 當時 人倫이 頹廢되었음은 이미 指摘할 수 있었다. 그것은 第二章에서 周慎齋의 書院建立의 出發點이 치도 했다. 退溪가 이런 狀況에서 人倫節義의 高貴性이 回復되고 來哲에의 期待가 結實되기 위해서는 그 中樞機關인 書院을 確固한 地盤위에 두어 發展시켜야 함으로 여기에 國家公認의 必要性이 있었다. 그 手續으로 慶尙監司 沈通源에게 公劄을 올렸었다. 賜額의 意味는 「書院의 發展을 위한 國家公認」이라고 할 수 있고 「賢賢」의 概念에서 繫辭의인 發展性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退溪가 이 賜額疏에서 期待한 것은 ① 扁額의 宣額 ② 書籍의 下送 ③ 土田의 下賜 ④ 奴婢 ⑤ 教育環境의 適合性認定 ⑥ 監司守令의 監督限界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退溪教育論으로 重要的 내용은 ⑤와 ⑥으로서 環境論과 學期論에 해당하는데 다음 節에서 論述하기로 한다.

以上과 같이 書院教育을 強調하고 永存策의 措置로서 賜額 즉 國家公認을 推進했다. 退溪는 이렇게 말했다.

23) 異端의 承譜에 관해서는 『孟子』滕文公篇上下, 盡心篇上등 參照.

今夫周侯之所作雖信而偉，安公⁽²⁴⁾之所成亦甚完密。然此特一郡守一方伯之爲耳，事不經宣名命，不載國乘，則想無以聳耳四方之觀聽，定衆人之疑懼，爲一國之効法而傳於久遠也。(上同)⁽²⁵⁾

一郡守 一方伯의業績으로서는 永傳하지 못한다. 王命을 기치고 또한 國家文書에 記錄되어야 輿論을 일으키고 疑心을 拂拭할 수 있는 効能이 있으며 그러므로서 「傳於久遠」 즉 永存시킬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退溪의 永存의 公理는 무엇이 있던가. 그 公理는 「山上遠下」라고 表現한 기기에 있는 것이다.

況竊以爲教必由上而遠於下，然後其教也有本而可遠可長。(上同)

여기의 「教」는 儒學으로도 되고 王命 또는 「가르침」으로도 되어 그 字의 含義는 매우 多異하지만 「制度」로 보아서도 無妨하다. 「教」는 「上下通達」되는 기기에 根本이 確立되고 동시에 永存의 기틀이 된다고 한 것이다. 이 「山上遠下」는 普遍을 意味하며 普遍인 故로 永存의 公理로 세길 수 있는 것이다. 이 公理를 退溪의 史觀에 適用시키면 士禍·紛爭등 迂餘曲折의 不條理는 그 原因이 이 公理에서의 離脫때문 이라고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山上不遠下」한데서 惹起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밑에서 위로가는 「山下遠上」도 上下通達일 수 있을 것이다. 어하간 現實의으로는 山上遠下가 되지 않을 수 없는 故로 함께 普遍公理에 包含되어야 한다. 「山上遠下」를 筆者는 退溪의 「永存의 公理」라고 해 두고자 한다.

24) 여기의 安公은 安珩을 말한다. 註14參照.

25) ① 企鵝集卷一「紹修書院記」에

斯其盛事也，而其所闕者，郡守既不請於朝，觀察使又不以聞，非俱型田作成之美意，鬱而不彰，事不由朝廷，名不載國乘，又難經久，後郡守臣李況，爲此而懼，道備錄院之顛末，上書于觀察使臣沈通源，請以上聞。

② 明宗 7 年 壬子 3 月 28 日 庚戌條에

郡守李況，尤眷眷焉盡其心，以爲事不能宣命，名不載國乘，則無以聳四方之觀聽，定衆人之疑懼，爲一國之効法，而終必至於興墜，乃曰諸方伯，聞諸朝廷，賞飾其光彩，悠遠其規模。

2. 教育의 再建과 求學者

上述한바 當時 教育은 疲弊되어 있었다. 教育의 中心機關인 國學과 鄉校의 實情은 「上沈方伯書」에서 살피 고기로 한다.

況竊見今之國學，固爲賢士之所關，若夫郡縣之學，則徒設文具教方大壞，士友遊於鄉校爲恥，其刑敝之極，無道以救之，可爲寒心。如不得其人而徒竊其號，則與今教授訓導之不職者無異….

라고 한데서 충분한 짐작이간다. 申企齋는 다음과 같이 敷衍하여 當時의 이 實情을 뒷마침해 주고 있다.

臣竊作爲學之道，廢而不講久矣。學而不講明其義，不知修己之爲何事。(上同 紹修書院記)

中央의 國學에는 그런데로 賢명한 「선비」의 子弟들이 關係하고 있지만 地方의 鄉校는 學生들이 도리어 거기서 지내는 것을 羞恥로 여긴다고 했으므로 그 疲弊가 극심 했음을 如實히 짐작 할 수 있겠다. 뿐만아니라 그 정도가 「無道以救之」라고 한데서 어떤 方法으로도 救濟할 길이 없다고 斷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風土에서 教育의 正常이 있을 수 없고 나아가서 人倫道義의 再建이 不可能함은 당연하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이런 疲弊를 書院에서 解決하려고 하는 이것이 退溪가 期待하는 書院教育이다. 退溪는 周郡守의 功을 讚揚하면서

噫，天其或者由是，而興書院之教於東方。

「天佑神助」라고 까지 感嘆해 마지 않는데서도 教育界의 實情을 알 수 있는 동시에 書院教育에서 期待度를 짐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극심한 教育疲弊의 責任과 原因은 어디에 있는가, 退溪는 그 責任이 人間性의 沒落에 있음을 否定한다. 그것은 學問의 主體인 「선비」 즉 求學者를 定義하는데서 窺取된다.

以歌先王之道，靜而閱天下之義理，以審其德，以熟其仁。

先王之道 즉 儒學을 즐겨 習得하고 조용이 天下의 義理(眞理)를 探求하며 德을 쌓아 仁을 體得하는 存在로 定義한다.⁽²⁶⁾ 努力하는 意志의 存在요, 동시에 그만금 向上의 可能性이 있는 存在, 이것이 「선비」이다. 退溪自身的 말을 빌리면 「積漸純熟」⁽²⁷⁾ 될수 있어서 教育을 통한 人倫道義의 再建이 可能하게 된다. 이러한 定義에 따를때 「선비」(求學者)의 指向은 內的 充實에, 있고 內的充實은 人間完成을 期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教育은 「人間教育」이어야 할 것이다. 人間教育의 實効가 不可能한 여기에 退溪의 痛嘆이 있는 것이다. 退溪에서 教育에 해당하는 말은 「教」 또는 「教學」이라는 用語이나 여기서는 便宜上 「教育」이라 해두기로 한다.

이와 같이 退溪가 看破한 人間教育의 不在는 前項에서 설명한 慎齋가 指摘한 「無教」와 表裏一體의 內容을 이루는 現實의 擬視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人間教育이 悞落된 原因은 무엇인가. 退溪는 ① 環境의 不適과 ② 學則에 의한 拘束을 들고 있다.⁽²⁸⁾

其視國學·鄉校，在朝市城郭之中，前有學令之拘礙，後有異物之遷奪者。

여기서 보는 바 「國學」은 中央에 鄉校는 地方에 있는데 그 所在地가 鄙市이지만 現代와는 달라서 環境에 誘惑된다 해도 實感은 없다. 하지만 重要한 것은 環境이 教育에 미치는 影響을 重視한데 있다. 勉學의 初志를 貫徹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教育에 環境이 얼마나 重要한가를 論證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學令, 즉 學則이 빈거로워 오히려 學生들의 動作을 拘束함으로써

26) 「선비」의 氣質에 관해서는 退溪先生文集卷十二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에 古之士固不屈於人之勢位……. 士子禮義之宗也.

27) ① 退溪는 明宗 8年 癸丑 4月에 成均館大司成에 任命되었는데 이때 「四學」이 通文을 들어 學生들을 이케 있다. 「國學」과 「四學」의 紀綱이 紊亂해 있음을 指適하고 있다. 退溪先生年譜 및 退溪先生文集卷 雜著四十一 「論四學師生文」參照.

② 「積漸純熟」은 李栗谷에게 보낸 勉學을 勸하는 말로 退溪先生文集卷十四 「與李叔獻」에 나오며 이에 관한 說明은 筆者의 本號 上揭 論文「退溪의 理氣互發說研究」의 結論을 參照.

28) 「沈方伯書」의 다음 한 句節에서 學則의 拘礙가 心穢함을 招할 수 있을 것이나, 或揚計於衆曰, 我輩不堪侵撓, 會當空齋散去.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考察

士氣와 意欲을 沈滯시켰다고 石做한다. 退溪의 教育論은 學則으로 拘束함이 없이 오히려 自由奔放한 가운데 實을 期할 수 있고, 讀書의 環境이 또한 適合해야 한다는데 重要的 意味가 있다. 上沈方伯書에서 「樂於書院」이라 하여 書院의 環境이 讀書에 適合함을 強調하고 있고 또 學則有害論에 관해서는

又令監司·郡守, 但旬檢其作養之方, 贍給之具, 而勿拘以苛令煩條,

라고 있어서 監司나 郡守의 書院에 대한 關與는 供給한 物資의 點檢에만 局限하고 기타 教科의 內容 學生의 指導 運營의 自治 등에 관해서는 關與해서는 안 된다는 主張이다. 官의 不干涉原則을 強調한 것이었다. 書院에 대한 官의 不干涉原則은 朝廷에서 認定을 받았고 따라서 公式化된 것이었다. 明宗15年 庚戌 2月 丙午條에

且儒生讀書, 貴寂寞之境, 若監司, 守令欲爲勸課, 煩其教令而檢束之, 則人不自由恐乖藏修游藝之道, 莫勿堯之而已。(明宗實錄)

하고 있다. 文頭의 「儒生讀書, 貴寂寞之境」을 아울러 考察하면 教育의 二大要件 즉 環境과 學則에서의 退溪의 主張은 貫徹公認되었고 그 實施를 고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書院이 監司나 郡守의 行政對象임을 알 수 있는데 官에서의 關與를 最大限으로 排除하려는 意圖는 참된 教育의 實現을 위하는 以外, 行政의 干涉이 介入함으로 만미안아 書院 本然의 使命이 混迷해질 것을 警惕·憂慮한 데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退溪의 書院에 대한 期待는 「하늘이 도와서」라고 한 정도이니 教育再建의 마지막 保蠶라 했다고 해서 過言이 아니다.

여기에 永存의 心願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由於上而達於下」 또는 「存本而可遠可長」의 普通論도 이로서 나온 것이 있으므로 「官에서의 不干涉」은 당연히 書院의 永存을 빼고 考慮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不干涉은 뒤에 遵守되지 못했기 때문에 四章 以下에서 論述하는 바 政治勢가 介入하기에 이른 그 原시의 이나가 되었고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退溪는 教育에 갖추어야 할 二人要件을 書院에서 一舉에 解決하고 遠大한 永存의 配慮로 官 不干涉의 措置를 아물러 取했고 그리하여 教育을 참 모습으로의 正常化를 希求했었다.

3. 書院教育에의 期待

退溪의 教育은 人間教育이었다 함은 上述하였거니와 이런 教育이 人倫道義를 實現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書院教育에서만 可能하다는 信念이 있었다. 明宗 11年 丙辰에 紹修書院일로 榮川(榮州)郡守(安瑤)에게 보낸 書翰「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에서

彼書院爲尊賢養士而設也。(退溪先生文集卷十二)

「尊賢」과 「養士」를 위하여 設立했다고 함은 慎齋의 「立廟而尚德」과 「立院而教學」의 두 句의 精神과 一致된다. 또 明宗 12年 丁巳에 역시 紹修書院일로 豐基郡守(金慶百)에게 보낸 書翰「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에서도

慎齋周侯創茲偉事，具論事設規，雖未免意高見疎之病，其專於尊賢講道之意，則確乎，不可易矣。

書院何爲而設也，其不爲尊賢而設耶，講道而設耶。(退溪先生文集卷十二)

慎齋의 書院建立은 「尊賢」과 「講道」의 精神에서 임을 분명히 했다. 이래서 退溪가 보는 書院은 道義振興의 場이요 人間教育의 場이다. 다음에 七言絶에서 退溪의 書院教育에 대한 期待를 보기로 한다.

(1) 竹溪書院(豐基)

竹溪風月煥官牆，肇被恩光作國羊。絃而可能進白鹿，明誠誰似導南康。(退溪先生文集卷四以下同)

이 詩의 「轉」「承」(以下同)을 세겨보면 諷書하여 朱子創建의 白鹿洞書院을 따를 것이며 行身은 朱子의 治(南康은 朱子任地)와 건이 되겠음 누운가가 기

導한 것이다.

(2) 臨阜書院(永川)

圃翁風烈振吾東，作廟渠渠壯學宮。
寄語藏修諸士子，淵源節義兩堪宗。

修學하는 어리 士子에게 이르노니 가장 重要한 大宗은 淵源(傳承)과 節義이다.

(3) 迎鳳書院(星州)

鳳山儒館極恢張，聚訟賢祠挾謗傷。
但願諸賢明此學，閒爭浮議自消亡。

다만 願하기를 諸賢은 道義의 學(儒學)을 宣揚하고 헛 空論을 閒爭하면 스스로 消亡한다.

(4) 丘山書院(江陵)

人材淵藪古臨瀛，闢學丘山潤石清。
降聖千年名已逝，乞靈今日教將明。

聖人이 나서 千年歲月이 흘러가도 正名思想을 못지켰구나 聖人에게 비노니 學을 밝게 해 주시길.

(4) 藍溪書院(咸陽)

堂堂天嶺鄭公鄉，百世風傳永慕芳。
廟院尊崇眞不黍，豈無豪傑應文王。

廟와 院은 세워 尊崇하니 참으로 깨끗하다. 어찌 聖人의 精神을 티득한 君子가 없겠는가.

(5) 壺嶽書院(大邱)

壺嶽形成壺難成，立院相招誦六經。

從此停聞明道術，可無吁寤得夙醒。

立院하여 講學하고 있어서 道術(道義)이 밝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깨남을 사람이 많으리라.

이렇게 書院의 教育的 成果에 期待와 確信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편으로 書院教育이 本軌에서의 逸脫을 매우 憂慮하고 있다.

白首窮經道未聞	늙도록 공부하여 道를 얻지 못했는데,
幸深諸院倡斯文	다행히 여러 書院 學問을 창도 하더니.
如何科目波瀾海	어찌하여 科擧 亂걸이 파도처럼 뒤치는고
使我間愁劇似雲	나로하여 시름을 浮雲처럼 심히하누나. (上同)

書院教育이 마치 科擧를 위해서 存在하는 듯 本末顛倒現象임을 一讀에서 알 수 있겠다. 아마 晩年의 作인 듯한데 退溪教育論의 本質은 人間教育에 있음은 以上 數篇의 詩만으로도 충분히 窺知할 수가 있다.

退溪가 書院에 期待하는 教育的 成果는 대략 다음 3項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國學」이나 鄉校에서의 現行教育은 上述한 바 이미 衰退했으므로 敎育의 再建 正常化를 期待하고
- ② 國家가 要求하는 人材를 養成한다.

由是言之，非惟士之爲學得力於書院，國家之得賢亦必於此，而優於彼也。(上方沈伯書)

라고 하여 國家가 必要로하는 棟樑材 養成을 渴求하였고 企齋도 이 期待에 크게 鼓舞되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將見人材蔚爲世用，而民蒙至治之澤矣。(紹修書院記)⁽²⁹⁾

이러한 熱望은 慎齋가 「以俟來哲於無窮」이라고 한 그 期待와 符合된다고 할 수 있겠다.

29) 明宗實錄 明宗 7年 壬子 3月28日庚戌條에
史臣曰…學聖賢而求其道，闡義理而養其德者，率皆得力於書院。賢才輩出，蔚爲世用。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考察

③ 先進中國의 水準과 比肩한 學問의 効果를 期待한다.

上記 七言絶 (1)의 「絃誦可能進白鹿, 明誠誰似導南康」이라고 한데서도 中國水準과의 比肩해질 수 있다는 意志를 認識한 수 있었지만 「上沈方伯」篇에서도 다음 한 句節을 들 수 있다.

將見東方大教之大明, 可與鄒魯閩越並稱, 其美矣.

라고 한데서 그 期待를 확실히 看取한 수 있고 企齋도 「紹修書院記」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又能興起而紹修於下, 是則教化由國學而及於書院. 由書院而遠于四方, 其效固非宋朝之所可比.

退溪가 書院에 대한 뜻은 실로 이러한데 있었다. 그래서

苟有先正遺塵播種之地, 若崔冲·禹倬·鄭夢周·吉再·金宗直·金宏弼之居, 莫不立書院, 或出於朝令, 或作於私建, 以爲藏修之所.

先賢의 由緒地에 書院建立을 勸獎했고 그것은 나아가서 王을 위하여(國事)에 크게 輔弼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惟有書院之教, 盛興於今日, 則庶可以救學政之缺: 學者有所依歸, 士風從而不變, 習俗日美而王化可成. 其於聖治非小補也. (上沈方伯書)³⁰⁾

以上 3節로 退溪의 書院教育論을 考察했다. 이미 말 했듯이 書院은 人倫不在의 「無教」에 대한 痛嘆에서 우리 나왔으며 「有教」를 目的으로하고 그 手段으로 教育이 있었다. 書院의 Ideologie는 우리 歷史와 우리 思想을 바탕으로 產出되었고 成長 發展한 것임은 明白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書院은 中國에서 導入模倣했다는 說은 贊成하기 어렵다. 周慎齋와 李退溪는 書院에 관한 宋朝故事를 歷史上 先例로 參考하고 그 推進에 당하여 鼓舞되었을 것은

30) 明宗實錄 註29의 同年同日字에 史臣曰…使先正遺塵之地, 爭相所慕, 學者有歸, 其所以闡揚聖朝右文之化.

화실하다. 그리므로 白雲洞書院 또는 紹修書院의 建立來歴과는 분명한 限界가 있음을 強調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IV. 書院性格의 變化(前期)

1. 尊賢의 變義

尚德과 敦學의 두 뜻이 表裏一體를 이루어 教育이라고 하던 尊賢의 概念을 退溪以後 仁祖 後期에 와서 그 變義가 나타난다. 이 때부터 尊賢은 概念을 享祀한다는 「典禮」의 意味만을 갖게 된다. 典禮와 教育은 別個의 概念으로 完全히 分離되는데 教育은 「崇道」로 表現되어 진다. 崇道는 敦學 또는 講學으로서 이 時代의 「教育」을 意味하는 用語이다. 여기서 우리가 指適할 수 있는 것은 周慎齋와 李退溪의 「尊賢」에 대해 이 時期부터는 狹義의 尊賢으로 區分하지 않을 수 없다. 退溪以後 書院의 內面的 變化의 重要한 點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仁祖 以後 書院에 관한 諸事象을 考察하면 敎育事項 以外 外勢가 介入하여 物議를 惹起시키는 이른바 書院弊는 그 根源的인 原因은 傳來의 尊賢概念이 단지 典禮의 뜻으로 變換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書院에 대한 一般的인 思考는 手段이던 敎育의 位階가 그 目的으로 認識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以下에 狹義의 尊賢으로 變義하게 된 具體的인 事實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仁祖 22年 甲申 8月 4日 己酉에 慶尙監司 林潭의 馳啓가운데

尊賢尚德之義, 轉成私黨. (仁祖實錄)

이라고 한데서 尊賢은 私的인 集團行事로 되었음을 看取할 수 있겠다. 그와 같은 林潭의 私黨說은 다음과 같은 事實에 根據한다.

至於論議不公, 或官貴則祀之, 或族大則祀之, 競事俎豆, 以相誇翹.

(上同)

이 句節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當時의 實情을 周慎齋와 李退溪가 強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考察

調한 尊賢의 精神과 比較해 問 때 尚德과 敎學의 表裏一體가 兩者乖離라 한 만한 隔差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은 밑써

官吏不能禁，留俗偷薄，誠極寒心。(上同)

이라 하기에 이르렀으니 林堦의 痛噴하는 心情을 推察할 수 있겠다. 이 馳啓의 內容은 當局인 禮曹에 의해서 그 正當性이 認定된다. 判書 李植 등은 그 回啓에서

書院之設，初爲待學問靜修之士，而其立祠享祀者，則必以一時所明知可爲師表者當之。今則不然，爲士者不事學問，所祀者或非其人。祀院雖多，斯文益晦，誠可寒心此狀啓所論，實爲有見。(上同)

尊賢은 이미 典禮에 불과하지만 이 글에서 보는 바 그 典禮도 얼마나 亂脈임이었나를 上記馳啓의 句節과 더불어 師表者가 享祀되지 않았다는 一句에서 알 수 있다. 때문에 「祀院雖多」하나 「斯文益晦」라는 現象이 일어났고 그것 옴 다시 吟味해 본다면 周慎齋와 李退溪가 尚德과 敎學의 二大支柱를 敎育에 一體化한 그 眼目이 얼마나 正鵠했나를 알 수 있는 反證이기도 한 것 이다.

林堦은 尊賢이 한갓 私黨의 行爲요 雞豆의 競事라는 當時의 實情을 「私自乖爭之弊」라는 用語로 表現하고 享祀의 對象으로 「一道士林通議之後」라는 條件을 提示했다. 이것이 以後 「士論歸一」이라는 書院配享의 基準의 一項으로 되어 지는 것이다. 우리가 留意해야 한 點은 그렇다 하더라도 「尊賢」은 第一期와 第二期에서의 그 것과는 다른 狹義리는데 있다. 士論이 歸一했다 해도 그 尊賢은 享祀라는 典禮로서의 意味를 벗어 날 수 없는 것이다.

이로부터 13年째가 되는 孝宗 8年 丁酉 6月 21日 壬辰에 이번에는 忠清監司 徐必遠이 書院의 弊端을 들어 馳啓했다. 그 가운데

唯意所欲，不後願單，不足於書院者，稱爲鄉賢祀，轉慕教。(孝宗實錄)

라고 했는데 이 句節에서 書院이 임치면 鄉賢祠라고 해서리노 享祀의 典禮

를 가지아 왔다는 執着을 일 수 있다. 「記의 「範事祖豆」가 그것이며 따라서 그나마도 尊賢은 私黨的인 行爲요, 行事に 不越하다. 이어서 그는 書院弊四項을 列擧했는데 그 第3項에 이렇게 論하고 있다.

其所尊奉之人, 不能一循公議, 或爲其子孫而其祖先, 或阿其所好而過爲推許, 故創立之際, 論議不一, 始爲開闢, 世累隱隱, 無不暴揚, 朝同臭味, 暮成仇敵, 傷風敗俗, 莫此爲甚. (上同)⁽³¹⁾

이 句節은 前記 林潭의 馳啓를 補完하는 듯 私自乖爭之弊가 有甚함을 知得하는데 不足하지 않다. 地方 各處에서는 아무리 享祀의 典禮라 하더라도 追仰하는 尊奉이 아니라 勢如何에 따라 左右되는 私欲에 充滿된 形式的인 俗義로 墮落해 가고 있음을 如實히 찾아 問 수 있겠다. 이러한 亂脈相의 對策으로 徐監司는

其不足於書院者, 降以鄉祀, 不足於鄉祀者, 即今毀撤, 其中不合享祀者, 區別拔去. 雖道學合爲書院者, 一道之內, 使不得疊立院(上同)⁽³²⁾

라고 하여 一大肅正을 強調하였다. 그리하여 書院亂立을 抑制하여 그 存立을 確立코지 하였다. 이에 대해 禮曹는 微溫的인 同調을 하였으나 朝臣들 間에는 맹렬한 反對가 일어났다. 玉堂은 忠淸監司 및 禮曹의 處事를 糾正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當該 本人과 禮曹堂上의 遞差를 強硬히 要求하였다. 그러나 이들 反對者의 理由는 書院存立의 根本을 危殆롭게 한다는 憂慮에⁽³³⁾ 있

31) 孝宗實錄 孝宗八年丁酉 7月8日己酉條에

禮曹又啓曰, 議于大臣, 則飭議政鄭人和以爲, 臣曾見忠淸監司徐必遠狀本, 極陳書院, 鄉賢祠未流之弊端, 而非敢有礙於設建之本意也. ……書院, 鄉祀之弊, 誰不知之. 至今因循不能釐正, 一朝變革, 何可得也. 欲除其弊端, 則未免爲不敬先賢之歸.

32) 書院과 鄉祠의 輕重에 관해서는 徐必遠 馳啓에 鄉賢祠, 則非但事體輕於書院…….

33) 孝宗實錄 孝宗 8年丁酉 6月21日壬辰 徐思遠馳啓에 대한 禮曹回啓에 禮曹는 玉堂 攻駁에 이렇게 辯明하고 있다.
今者書院事, 本曹仍具道臣之請, 略爲裁損禮啓, 致有玉堂之斥, 取舍裁定之間, 或不無未盡之處. 儒臣稱辭, 則推原書院建設之本意. 倦倦不已, 誠有關於扶植之教. 徐必遠狀本中所陳, 乃是未流之病弊, 意在矯其亂爲, 則其間雖有一二未妥之事, 亦未可深非.

있으므로 相互 眞意의 不通에서 온 對立이라고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如何間에 朝野의 書院愛護的인 主張들이라 하더라도 「尊賢」이 典禮에는 變함이 없다. 다음 句節을 보면

然立院之本，在於修業人才，而祀賢之禮，由院而出。故有院而無祀者，亦多有之矣。(上同)

修業과 祀賢은 빙빱히 別離되어 있다. 「有院而無祀者」는 그 證左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若曰院祀之中，有非其人而不宜享者，則誠亦然矣。…曾在先朝，儒臣金長生疏，舉全彭齡·郭詩等名，以斥其謬，朝廷既許黜去。…近來士論，亦以柳根等之不合祀享爲言……。(上同)

라고 한 「不宜享者」가 있다는 여기에도 尊賢의 概念이 變義되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한편 上疏에 特定人을 指適하여 配享에서 黜出했다는 實例는 享祀 外의 典禮도 이미 派爭의 對象으로 低俗化 되었다는 證據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尊賢」의 概念은 變하여 祀賢하는 하나의 典禮의 意味만이 주어졌다. 그나마도 低俗化의 徵兆가 漸次 濃厚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顯宗 以後부터 「賢」의 基準問題가 까다롭게 擧論된다. 王朝實錄과 書院曆錄에서 그 基準을 찾으려면 다음 6個 項으로 整理된다.

- (1) 傳道淵源=儒學을 繼承, 學統을 傳했느냐의 與否.
- (2) 學問宗師=學問道德 및 文章이 當代의 宗師가 되느냐의 與否.
- (3) 人倫追師表=行爲와 處身に 節義가 있어 當代의 師表가 되느냐의 與否.
- (4) 功績爲國=國家를 위한 功績이 있느냐의 與否.
- (5) 死節之忠=死節이 殉國의 忠이냐의 與否.
- (6) 公論歸一=以上 5個項이 어느 項에 合當하느냐는 公論의 一致.

學德, 節義, 業績에 관한 衆論一致의 公認에 의해서 비로서 書院配享이 可

能하게 된다. 配享人物은 追仰하는 한 뜻은 公論歸- 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基準에 違背할 경우 「私自」에 不過함으로 院祠로서의 存立이 許容되지 않는다.

上 6 個 項中 第 5 項까지는 어느 項에서나 마지막 第 6 項과는 不可分의 關係이지만 數個項의 關聯도 있을 수 있다. 各項에 該當하는 代表的인 人物을 例示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圃隱鄭夢周, 治隱吉再(1)(2)(3), 佔畢齊金宗直, 寒瑄堂金宏弼(1)(3), 晦齋李彥迪, 退溪李滉(1)(2)(3), 花潭徐敬德, 南冥書績(2), 稭里李元翼(4) 西涯柳成龍(1)(4), 白沙李恒福, 淡陰李德馨(3)(4), 忠武公李舜臣(5), 忠烈公宋象賢(5), 愚伏鄭經世(1)(2), 桐溪鄭藎(3), 杜門洞諸賢(3).

第 6 項의 公論歸一은 벌써 仁祖後期부터 辨論되었다.³⁴⁾ 함은 言及했기니와 「私自」로 看做되어 毀撤 當한 경우를 보면 仁祖 23年 乙酉 正月 19日字에서 一例를 들 수 있다.

書院之設……慎景稷, 成慶昌等爲其祖私者設於鄉校至近之處, 極爲可該, 前縣監朴長遠仍公議毀撤之. (書院勝錄)

書院의 「私自」問題에 參考될 事項을 添言해 두기로 한다. 光海君때 寒岡鄭述은 死六臣의 一體並享이 私家에서 並享되던 非禮라하고 그 不可를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私私로이는 家廟外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³⁵⁾

以上 書院教育의 特徵을 3 期까지 通觀해 보았다. 發展은 段階的으로 變貌를 明白히 해 주는 점으로 볼 때 지금까지 본 書院의 內面的 흐름은 發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 『書院勝錄』 仁祖 23年 乙酉 正月 19日字의 全羅監司狀啓에
…雖出於上尊賢之意而必須一道士論歸一, 然後可以創立事.

35) 大丘府邑誌에

先生玄孫參奉徽昌, 嘗於先生忌日 6月初7日, 夢見六人並臨, 覺而感悟, 別設一體祀之. 寒岡鄭先生述曰, 私家並享五位非禮, 宜建別廟並享可也. 厥後士林創建書院于朴先生不遠之地, 以爲春秋俎豆之所, 即洛濱書院也. 虛廟甲寅創建已未奉安.

이미 글及한 바 創立當時의 書院은 道義尊重의 念願에서 誕生하여 그것을 實現하려는 中樞機關으로 發展하여왔다. 그러므로 目的은 道義尊重의 實現에 있었고 그 手段으로 教育이 存在했고 尊賢이라는 것이 었다. 書院教育 第1期의 特徵은 이리했고 第2期는 國家公認의 制度化였고 이 措置가 退溪의 賜顧疏였다. 이것은 教育의 頹廢現象으로부터 再建하여 書院教育을 永存시키 目的實現으로 向하는 意欲의 表現이요, 기틀이 었다는데 特徵을 찾을 수 있었다. 創業에 이어 發展永存의 기틀에서 바람직한 效果를 期待해 볼 第3期는 意外로 그 指向하는 바가 轉倒되다. 그것이 尊賢의 變義로서 享祀와 崇道로 分離되어 尊賢은 다만 典禮로서 行事的 意味로 되어진다. 이렇게 된 으로서 書院의 目的은 教育이라는 思想이 支配하게 된다. 여기에 享祀를 圍繞하고 外勢가 介入할 수 있는 素地가 마련되는 結果로 나타난다. 이러한 大勢는 다음 時期 즉 肅宗以後부터는 享祀 典禮에서 다시 爭取의 場으로 變質되는데 그것이 다음 章에서 論하는 「書院의 許可制」이다. 이렇게 書院의 性格이 變貌한 時期는 이미 글及한 대로 第3期에서인데 林監司가 馳啓한 仁祖 22年 甲申은 周慎齋의 白雲洞書院建立으로부터 꼭 百年째이며 李退溪의 賜顧疏로부터 95년에 該當한다.

2. 書院의 許可制

書院의 變貌는 고는 側面에 따라 이리 가지론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性格面이다. 性格의 變貌가 公式的으로 指適舉論된 것은 上述한 바 仁祖 22年 甲申의 林監司 馳啓였다. 書院의 弊로 두 項을 들어 其一은 書院의 亂立이고 其二는 尊賢尚德의 精神이 私黨化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부터 80年째가 되는 景宗 3年 癸卯에 承旨 李眞儒는 書院의 弊를 「疊設」과 「猥享」이라고 까지 極言³⁶⁾ 했으니 林燾의 馳啓는 書院의 精神이 變하고 制度로서 紊亂해 간다는 豫告였다. 이 때부터 書院建立의 許可制가 採擇되었다. 仁祖 22年 甲申 8月 4日 己酉條에

36) 景宗實錄 景宗3年癸卯4月4日癸丑條에

承旨李眞儒, 極陳書院之弊, 仍請廢去疊設, 猥享之類.

一道士林通議之後, 呈請本官, 放報監司, 轉稟朝廷, 得準許. (仁祖實錄) 라고 있어서 一次的으로 士林이 승議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監司가 받아야 하고 셋째 監司로 하여금 朝廷에 上申하고 朝廷에서 審査決定하여 許可한다는 節次이다. 이리하여 書院이 私塾化로 轉成되는 것은 亂立은 防止함으로서 是正되고 그리하기에는 許可制가 奏効이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禮費는

皆今轉報本書, 通議朝廷, 公論準許, 然後創設爲常. (上同)

라고 하여 그 建議를 贊成하였다. 이리하여 許可制가 採擇되고 各道함께 遵行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미 그及한바 書院에 政治勢力이 介在되는 主要原因이 이 許可制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後述)

林監司馳啓로부터 13년이 지난 孝宗 8年에 徐監司가 報告한 書院弊는 보다 具體的으로 4個項이 指適되어 있다.

(1) 書院과 鄉校의 輕重差가 있어서 명색이 士族이요, 知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院儒라고 自誇하면서 鄉校를 店舍처럼, 鄉校學生을 奴隸처럼 생각한다. 이것은 國家가 興學하려는 뜻을 虛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2) 身分의 良賤을 막론하고 閑民을 募集하여 保奴라 함은 軍役을 忌避하는 處事이니 이로 말미암아 群起不滿이 沸騰하고

(3) 尊奉人物이 公議에 不一致한다. (J:述) 이것은 美風良俗을 감정이 極甚하고

(4) 書院의 春秋祭需을 道에서 支給함은 經費負擔이 過重하다.⁽³⁷⁾ 고 했는데 여기에는 林監司馳啓에서 보다 「保奴」와 「經費」問題가 追加되어 있다. 後世에 이르기까지 爭論되는 書院弊는 대체로 이 4個 項으로 羅列되

37) 孝宗實錄 孝宗 8年 丁酉 6月 21日 壬辰條에

① 鄉校書院, 輕重有間, 鄉居士子之名爲士族, 稍有才識者, 則皆名書院, 稱以院儒視鄉校如店舍, 作教生如奴隸…

② 毋論良賤, 募得閑民, 稱以保奴, 任意使喚… 如有奪定軍役之舉, 則群起嗾奴.

③ 本文의 引用 參照

④ 書院鄉祠, 春秋祭需, 自本官備給之際, 所費甚廣, 而事係學官, 故爲守令者極力備送, 猶恐不乃…

어 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是正案으로 七個項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이리 하다.

① 享祀에 不適合 者는 區別하여 拔去한 것. (上述)

② 享祀에 適合한 道內에 院宇를 疊設 못하게 한 것. 이것이 이른바 疊設의 禁止條項이며,

③ 春秋祭需는 未賜額書院은 除外하고 賜額書院에만 官에서 備給한 것.

④ 院祠의 建立을 願하는 者는 享祀者의 行蹟을 具備하고 僉議合一한 다 음 許可한 것. 이것이 이른바 許可條項이며

⑤ 朝廷에 不稟한 書院은 私自로 創立한 것이니 濫祀로 規定하고 그 首倡 者를 罰한 것. 이것이 이른바 論罪「處罰」條項이며

⑥ 現在의 保奴는 賜額書院 鄉賢祠를 막론하고 함께 革罷하여 監司에 歸屬시키 軍兵에 屬하게 한 것.

⑦ 入校儒生이 赴學하는 경우는 京의 四學의 例에 따를 것.⁽³⁸⁾

以上 7個項인데 後世에서의 用語 즉 疊設, 論罪, 毀撤, 濫祀 등의 그 成立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前者 林監司의 防止策과 比較해 보면 「祭需」의 制限, 「保奴」를 不認한다는 것은 그 規制가 加重된 것이나 그 보다 重要한 地 點은 疊設禁止의 第2項과 「私自」로 規定된것을 濫祀로서 의당 撤去하고 建立의 主動者를 論罪한다는 第5項이다. 前者의 疊設은 同一人이 道內에서 두 書院 以上 享祀되었음을 말한다. 林壇의 許可制에는 이러한 두 個 項의 考慮는 없었는 듯하다. 이제 와서 疊設을 禁하고 아울러 許可制를 固守하면 서 違反者에 處罰을 加하고 「私自」는 斷乎히 毀撤하는 것이니까 禁法으로서 는 매우 嚴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나 우리가 看過할 수 없는 것은 이치 甚 嚴格한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書院의 疊設과 亂立이 日益增加하여 全國

38) ①은 本文의 引用 參照.

(2) 雖其道理合爲書院者, 一道之內, 使不得疊立院宇.

(3) 賜額書院外, 未賜額書院, 春秋享祀祭需, 勿至官家備給.

(4) 今後欲立書院, 鄉賢祠, 許令其具有蹟... 僉議合一, 然後立之.

(5) 其不稟朝廷, 私自創立者, 則論以濫祀, 罪其首倡儒生.

(6) 所謂保奴, 再論已賜額書院·鄉賢祠, 一體革罷, 歸之本官, 以屬軍兵.

(7) 入校儒生赴學之類, 依京中四學例...

250處에 都合 660餘院祠와 1,300餘名의 享祀者를 넣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 理由는 여러 面으로 考察되어 지겠으나 생각컨대 政治支持 勢力的 消長과 더불어 禁法이 施行되는 過程에서 首尾一貫되지 못한데 있는 것이라고 보며 그 政治勢力的 介入根據가 屢說한 바 이 許可制에 있다고 본다. 中央政界의 版圖 또는 道伯의 親棟에 따라서 利不利가 左右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徐必遠의 이 7個項에 대해서 禮曹는 다분히 懷疑的인 態度였으나 대체로 許容되었다. 그래서 許可制, 疊設의 禁止, 私自創立의 禁斷, 그 首倡者의 論罪, 그리고 祭物官給의 革罷등의 決定을 내린 것이었다.³⁹⁾

以上을 綜合해 보면 仁祖 後期에 表面화된 書院性格의 內面問題는 孝宗末期에 와서 그 方向을 轉換시켰다. 그것은 尊賢의 變義로 說明되어 작은데 이것을 書院性格의 變化前期 또는 第3期(顯宗까지)로 區分하고 그 變化後期는 第4期로서 肅宗부터 그 以後가 된다. 이 時期에는 「享祀의 是非」와 「疊設의 禁止」가 顯著하게 나타난다.

V. 書院性格의 變化(後期)

1. 享祀의 是非

「享祀」라고 함은 特定人을 祭祀의 對象으로 指定하는 말로서 特定된 人物을 享祀者라고 한다. 이 享祀의 概念에 「尊賢」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에 關係지도 이미 論述하였다. 이 時期에서도 用語上 「尊賢」은 거의 없고 「享祀」가 通用語로 되는데 이 點으로서도 尊賢의 變義를 말해 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享祀 이것은 主觀的인 問題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人物을 選定하여 享祀者로 하는 이 過程은 主觀의 世界인 것이다. 行狀을 가지고 學問宗師, 功績爲國 등의 基準에 合當與否를 가린다 하더라도 그 基準自體가 원래 包括的이며 行績의 記錄 역시 美意에서 나온 것이니 抽象的이므로 基準과의 關係는 오히려 主觀의 問題인 것이다. 精神的으로 支持하는 경우 行狀은 人

39) 既出 孝宗實錄 孝宗 8年丁酉 6月21日壬辰條 參照.

倫, 學問에 關해서 宗師的인 表現은 또 完美한 讚揚은 行수도 있기 때문이다. 主觀이므로 自他의 異論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政治的인 利害가 介入된 때는 反對論의 序頭는 必然之事로 될 것이다. 우리 歷史上 肅宗時는 黨色이 가장 顯著한 때 위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事件 속에서 얼마디로 말하면 書院에 黨色이 誘導된 것이며 그 媒介役割이 許可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地方에서도 어느 牧, 府, 또는 縣에 例컨대 四色이 混在한다 할 경우 享祀는 물론 自派에 屬했던 或은 同調했던 人物로 될 것이며 따라서 中央과의 接觸도 그와 같은 길을 擇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主觀은 이러한 內容인을 意味하므로 基準에의 適用이 主觀的이요, 許可過程에서도 主觀이 作用하게 되며 「上論歸一」도 그 主觀性을 排除한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書院은 客觀的인 存在가 아니라 主觀의 世界에 存在한다고 할 수 있겠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主觀이 作用된 代表的인 例로 楊州 道峰書院의 尤庵宋時烈의 追享을 둘러싼 享祀是非를 살펴보기로 한다.

道峰書院은 宣祖 6年 癸酉에 建立되고 同年에 賜額된 靜庵趙光祖를 配享한 書院이다. 靜庵은 儒學精神을 俱現하려는 理想을 가진 學者요, 政治人으로서 中宗 14年 己卯士禍에 被禍된 政治리더였다. 동시에 우리 나라의 五賢의 一人으로 後世 追仰받는 人物이다. 이 書院에 肅宗21年 乙亥 12月 尤庵이 追享⁴⁰⁾되었는데 靜庵과 尤庵이 並享되는 것은 不可하다는 反對論이 猛烈하였다. 위선 그 並享이 合當하다는 贊成側의 理由부터 고기로 한다.

그 理由는 景宗 3年 癸卯 12月 25日 甲辰에 前承旨 李喬岳에 의해 說明되어진 그것이다. 즉,

先正平日, 一言一動, 動法朱子, 以明春秋大義爲第一件事, 淵源門路, 得方於文正公趙光祖. 生平慕悅, 至死尊敬, 末稍受禍, 前後一致, 則一祀並享, 於禮亦宜. (景宗實錄)

尤庵의 一舉一動은 朱子에 準하고 春秋大義를 分明히 한것이 處身의 基本

40) 肅宗實錄 肅宗21年乙亥12月10日甲辰條에
 行禮官鄭龍日, 君屬畿疏, 請以宋時烈, 並享於趙光祖書院, 該曹既已回齊... 故儒生輩尙不舉行云矣. 上命以並享, 政本體舉行.

이미 靜庵의 學統을 繼承했고平生 그를 慕悅했으며 그 분이 아니라 나 자신이 賜藥을 받았고 死後 追仰되는 등의 前後事情이 靜庵과 尤庵은 一致한다고 들고 並享함은 適當하다고 主張했었다. 그러나 反對側의 尤庵의 評價는 全然 그와는 相反된다. 反對理由를 보자. 反對理由는 長文으로서 景宗3年 3月 13日 壬辰에 館學儒生 金苑甲等의 上疏文에 說明되어 있는데 그 疏를 抄記하면

…春秋大議，即時烈斯也 棚也。孝廟則求之以實効，而時烈則應之以虛聲。孝廟則待之以誠意，而時烈則濟之以作偽。平生伎倆，只在於欺誣一也。而至於實地上事業，了無尺寸之稱。(上同)

이라고 最大의 貶稱을 기침없이 驅使하여 治績이 虛實임을 主張하고 朱子에 準할다는데 대비서는

假眞僞偽之態，可謂隨處綻露矣，模擬朱子，即時烈一生伎倆也…。朱子之於時烈邪義利之分，不翅若天壤之懸絕，而必乃憑藉而假托之。(上同)

라고 하여 反論者가 보는 尤庵은 이러하다. 同一人에 대해 正反對의 評價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또 尤庵 處世에 관한 評을 보기로 한다.

…彼時烈者，盜名索價，盜來索去，末乃挺身於局面顛覆之際，異己者濟之陷之，附己者引之進之，貪權樂勢，惟意所欲，固結惡戚，同惡相濟，扶護誣告之奸賊。(上同)

醜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享祀問題는 政治鬭爭으로까지 擴大된다는 巷間의 說은 결코 無根의 事實이 아니다. 이러한 贊反對의 是非는 代를 이어 내려가 長期化하는 것이 通常이다.⁴¹⁾ 결국 尤庵은 道峰書院에 並

41) ① 宋時烈을 誹謗한 記錄은 道峰書院 以外에도 많으나 다음에 그 一例만을 들면 이리하다. 景宗實錄 景宗3年 癸卯5月1日己卯條에 宋時烈貌假學問之名，口誦耳·渾之道，以爲斯世發身之計。其時大小文字，多出其手…。

후의 있지만 우리의 關心은 이러한 狀況이 士論歸一이 될수 없고 節義의 學問의 宗師라는 定義를 배릴 수 없다는 점이다. 享祀는 主觀의 世界이고 뒤 서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是非는 道義의으로 解決될 수는 없고 勢力이 배등지이 줄 것이니까 政治問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李貞儒의 「猥享」이라고한 表現은 享祀의 低俗化를 일리는 말이 아니겠는가.

2. 疊設의 禁止

疊設의 禁止는 同一人의 書院이 賜額 未賜額을 막론하고 두 곳 以上 있어 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禁止의 趣行는 亂立으로 비쳐지는 副作用과 尊賢의 私黨化를 막자는데 있었고 孝宗 8年에 나온 書院正常策이 있다.

疊設禁止를 論할 때마다 王은 「定式施行」을 붙여서 許諾한다. 注目이 가 는 것은 그런대로 빈번히 定式施行이 強調되는 점이다. 이것은 定式施行이 안 된다는 反證인 것이다. 肅宗朝를 例로 들면 21年 乙亥 6月 2日 壬辰條에

吏曹判書尹趾善, 仍陳書院求請之弊, 請禁疊設. 左議政師尚運又請, 如有疊設新建之祀, 則地方官乃監司論罪事, 定式施行, 上皆許之.
(肅宗實錄)

疊設禁止와 함께 論罪는 밑씨 徐必遠의 主張이 있다. 그 論罪는 建立主動者을 處罰하자는데 不過하나 여기서는 地方官과 監司에게도 責任을 追窮한다는 新規條項이 追加되어 있다. 이렇게 決定해 놓은 定式施行은 ① 同24年 戊寅 10月 6日 丁未에도 ② 同25年 己卯 윤7月 15日 辛亥에도 ③ 同35年 己丑 9月 19日 己酉에도 ④ 同38年 壬辰正月 5日 己丑에도 ⑤ 同35年 癸巳 7月 21日 丙寅에도 疊設書院이 있다면 嚴加禁斷을 強調하고 그 때 마다 「永爲定式施行」이라고 確定시킨다. 肅宗 21年 7月 30日 乙亥條에는

② 代爲이인 是非政駁은 다음의 各條項이 그 例이다.

肅宗實錄 肅宗 22年 丙子正月10日丁卯, 同12日己巳, 同20日丁丑, 同22日己卯. 景宗實錄 景宗 4年 甲辰 11月 6日丙午, 同8日戊申, 同29日己巳. 英祖實錄 英祖 元年 乙巳正月11日 庚戌, 同17日 丙辰 同 2月 8日 丙子 등.

閔鎮厚曰, 外方祠宇, 不爲陳請, 而創建者·監司·地方官論罪, 儒生
停學, 論罪無定律, 停學無年限, 且有定式, (肅宗實錄)

하고 處罰規律까지 提議했고 그 具體적인 規定은

王命儒生期限三年停學, 而論罪一款則問之守令, 初欲以奪告身爲定,
更因鎮厚言, 以監司推考, 守令罷職爲當, (王同)

라고 區分하여 전국 監司는 推考, 守令은 罷免, 儒生은 科擧應試의 3年間
停止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 所定의 處罰을 받은 記像은
찾기 어렵다.

그런데 注意할 점은 禁令의 「定式施行」을 確定 強調하면서도 疊設을 許容
한 事實이다 宋尤庵의 경우를 例로 들어본다.

- ① 肅宗 20年 甲戌 7月 5日 庚午에 全羅道 礪山의 竹林書院에 合享
- ② 同年 9月 25日 乙酉에 忠清道 文義의 魯峯書院에 合享
- ③ 同21年 乙亥 7月 13日 癸酉 京畿道 水原에 新建한 梅谷書院에 賜額
- ④ 同年 12月 3日 庚子 全羅道 井邑에 新建한 考嚴書院에 致祭宣額.

이와 같이 疊設을 公然히 進行시키고 있음은 前記禁止가 無視當하고 定式
施行이 얼마나 無力했던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律·令이 無力한 가
운데 展開되는 狀況 이것이 政治勢力인 것이다. 綜合해서 보면 疊設 禁止에
대한 立場을 3類型으로 볼 수 있겠다. 其 1은 絶對禁止이고 其 2는 禁止에
同調하면서도 例外를 들리는 立場인데 尤庵을 推戴하는 勢力이다. 이에 관
해서는 다음의 한 句節을 分析考察해 보면 知得할 수 있을 것이다. 肅宗 21
年 乙亥 12月 13日 辛丑條에.

朱文公書院, 婺州一境所建, 至於三處, 而未聞以疊設之議之者...
華陽是時烈積年講習之地, 何以可以疊設禁之手, (肅宗實錄)

承旨尹德峻이 書院疊設의 弊를 極言하고 嚴加禁斷을 請했는데 左議政柳尚運
은 이에 贊成했으나 校理鄭浩는 反對했다. 그 反對의 內容이 이 文章이다.
尤庵 積年의 講習地라는 緣故가 王命에 의한 「定式施行」이 律令에 優先할
수 없음을 常識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 緣故는 疊設의 禁令으로 拘束할 수

없다고 힘이 분명하다. 이러한 姿勢는 特權意識, 優越意識에서 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前記한 바 「一言一動, 動法朱子」라고 確信함으로써 朱子와 同等的한 追仰과 尊敬을 要求하는 여기에 優越感이 있었고 그러므로써 定式施行도 默殺하는 것이다. 그리고 尤庵의 道峰書院 並享이 不可함을 論한 進士李濟億 등을 定配했다⁽⁴²⁾는 것도 그의 存在가 거의 不可侵이라는 確信에서 나온 專橫이 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其 3은 疊設의 禁止를 絶對 反對하는 立場이 있었다. 肅宗 43年 丁酉 11月 10日 丁卯條에 都承旨趙道彬은 書院疊設이 근래 痼弊라고 認定하면서

本院以朝禁, 不敢捧入, 而但念嶺南素稱之邦, 而近來儒化漸衰, 士趨失正. 若於先賢講習之地, 許置院宇, 以爲多士, 矜式之所, 則恐有補於興化之方矣. (肅宗實錄)

院宇를 許容하는 것은 興化의 方法이 된다는데 禁止의 必要가 있겠느냐 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보다 5年 遡及하는 肅宗 38年 壬辰 正月 5日 己丑條에 都承旨權尚游는

大賢書院何可一, 例禁斷乎. 聖人天下共祀, 大賢之疊祀, 亦何妨也. 寺刹則不能禁, 徒欲禁書院, 未知其可也. (肅宗實錄)

라고 하여 「寺刹則有能禁」인데 書院을 禁하려고 함은 不當하다고 하는데 그 眞意가 있는 것 같다. 寺刹을 禁하면서 書院의 疊設을 禁해도 좋다는 論法이 될 수 있겠다. 이 論據는 現實을 洞察못한데서 오는 感情의 主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主張은 벌써 徐必遠의 馳啓를 反駁한 應教李正英, 副應教閔鼎重의 上筭에 나타나 있다.

天下之事, 行之久, 無有不弊. 然今拂宇梵宮遍於天下, 倡率無父無君之徒, 坐奪良民之食者, 動以千百計而未聞有汰者. 乃獨於學院儒林之

42) 肅宗實錄 肅宗 22年丙子正月10日丁卯條 參照.

事, 必欲毀撤而省約之, 論罪而設某焉. (年月日既出 孝宗實錄)

佛寺의 毀撤은 고사하고 하필 學院(書院)만을 毀撤함은 不當하다고 한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主張들은 孝宗 8年 以後 肅宗朝까지 中央에 70餘年 하나의 勢力을 形成하고 있었으므로 前記 權尚游의 主張이 나왔다고 봐서 無妨할 것이다.

以上 「疊設의 禁止」를 綜合하면 絶對禁止派, 例外固守派, 禁止反對派 3派 勢力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例外固守派의 背後政治勢力으로 말미암아 疊設禁止는 事實上 默殺 當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本稿의 論點인 退溪가 書院教育에서 實現코자한 그 期待는 그 以後 一言之蔽하여 빛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書院의 性格과 教育이 上述한 바와 같이 目的과 手段으로 一體이기 때문에 書院性格의 變化는 자인히 教育의 概念에도 變化를 齊來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書院에 政治勢가 誘導된 것은 配享人物이 政治의인 巨物일수록 密接하게 되는 것은 書院의 品位를 그 대로 反映해 준다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第三·四期에서도 是非紛爭은 特殊한 경우이며 그 教育機能을 全的으로 否定할 수는 없다. 이 時期의 教育概念은 慎齋나 退溪때 보다는 狹義로서 「배움」에 그치고 人倫을 尊重하는 社會實現이라던가 教育 疲弊의 刷新, 國家棟樑의 養成, 先進文化에의 比肩 등과 같은 遠大하고도 雄壯한 높은 次元으로서의 教育概念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 結 論

以上으로 書院의 性格이 變化하는 過程을 中心으로 論述하면서 退溪의 書院 教育論을 考察하였다. 序言에서 言及한 바 筆者는 書院의 建立은 우리 思想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思想史의으로 한 轉換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轉換의 契機가 歷史의 直視와 現實의 깊은 洞察에서 온 「無教」의 嘆息이었고 그 指向이 人倫이 尊重되는 社會의 實現이었다. 그 實現을위해서 教育이

存在하 것이었다. 故로 書院에는 「有教」라는 未來의 理想을 達成하려는 目的이 있고 目的 遠想의 使命이 教育 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目的意識과 教育使命은 不可分의 一體이며 이 「一體」가 書院이다. 이런 까닭에 筆者는 書院을 「人倫社會를 實現하려는 中樞機關」이라고 했던 것이다.

目的과 使命의 一體로서이 書院教育은 書院發展史上 周慎齋와 李退溪에서 推進되었고 그以後 第三·四期에 와서는 「一體」意識은 漸次喪失해 갔었다. 그 原因은 書院의 性格이 變化됨으로써 동시에 教育의 使命意識로 忘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退溪의 書院教育은 上述한 바 第二期에 屬한다. 書院發展의 全過程에서 볼 때 慎齋의 創業을 繼承 發展의 定礎를 確立한 것은 참으로 偉業이었다. 退溪의 書院教育에 대한 期待는 결코 架空의인 理想追求가 아니었다. 現實 凝視에 바탕에 둔 實現性 있는 高次元의 目標였다.

應教 李正英 등이 主張한 「天下之事, 行之久, 無有不弊」라는 말대로 書院도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凋落해야하는 自然現象이었고만 해 둘 수 있을 것인가.

歷史를 洞察하고 現實를 直視함이 거기서부터 木來로의 方向을 提示하는 指導者가 없었던 까닭이라고 指適할 수 있을 것이다.